

하나됨과 나눔

“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

< 마태복음 28장 10절 >

- 오늘은 가정의 달, 부부주일입니다. 온 가족이 '교회로 소풍가요' '가족 추억만들기' 의 날로 주일예배에 참석하십니다. 가정 중심으로 마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시고 좋은 추억을 만드십시오.
- 예배 후, 가정별로 흠어지기 전에 교회 제직회와 1/4분기 역할공동체 실행위원회를 모이시기 바랍니다.
- 오늘 예정하였던 교회 공동의회는 번거로움을 피해 다음 주일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 다음 주일은 성령강림주일입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고, 오후에는 탁구대회가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십시오.
- 6월 1일(수) 지방선거를 위해 기도하시고, 투표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직원들이 31일(화) 공동체학교를 방문합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9 - 22 호

2022년 5월 29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교회로 소풍가요, 가정의 추억 만들기

가정의 달 5월에 사랑방공동체에서는 매주 특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주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주일로 정하고 그에 맞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도력 훈련원에서 부부훈련이 있을 경우에는 훈련에 참여한 부부가 찬양을 하기도 했고, 결혼 30주년 이상의 부부들이 찬양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로 교회로 소풍가요, 가정의 추억 만들기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약 2년 6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는 것을 조심했었습니다. 이제 방역완화와 함께 가족이 함께 교회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봄을 맞아 여러 가지 꽃들이 줄지어 폈었고 이제는 새순이 돋아나 파릇한 잎이 되었습니다. 하늘과 햇빛, 바람이 좋아서 약간의 그늘만 있으면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풍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야외에 갔다 오거나 학교에서 자연관찰이나 역사 유적 등의 견학을 겸해서 야외로 갔다 오는 것을 말합니다. 봄과 가을에 소풍을 간 기억이 있지만 요즘에서는 소풍을 간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견학이나 체험학습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벗삼아 친구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면 삼삼오오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한강변의 잔디밭에 돛자리를 펴고 준비해온 간식과 식사를 즐기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단위보다는 친구와 함께 오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 가족과 함께 소풍을 가본 적이 있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가정들이 그런 시간을 가진지 오래 일 것 같습니다.

바쁘고 빠른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족이 함께 시간을 갖는 것도 더군다나 자연 속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시간과 장소, 가정의 상황에 따라 잘 모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 사춘기 때, 성년이 되고 난 후, 직장에 따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있는 시간을 갖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가끔 가족들과 함께 자연을 보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편해진 것을 느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산과 들에서 제자들, 혹은 떠르는 많은 무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늦어져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이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연 속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재에 가정은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1인가구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도시는 직장 때문에, 혹은 학업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1인을 위한 아파트와 주택이 많아지고 마트와 편의점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해 식사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반조리 식품과 냉동식품이 많아졌습니다. 도시 뿐 아니라 시골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시골에서는 어르신들이 삶의 터전을 헐사리 바꾸지 못하고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함께 사는 것보다 편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주위 신경 쓸 필요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에 과도한 관심을 불편해 하기도 합니다. 급변하는 시대, 바쁜 생활은 우리에게 쉬고 싶게 하고 나만의 시간을 소중히 지키고자 합니다.

사진첩을 보면 소풍갔을 때를 알 수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다는 것이 흔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각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원하는 것을 찍을 수 있지만 막상 사진의 내용을 보면 개인 사진이거나 꽃이나 환경 자연 등을 찍어 놓거나, 때로는 일을 하기 위한 것을 기록해 놓은 사진이 많습니다. 의외로 가족사진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 외에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찍은 가족사진을 찍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때로는 함께 하지 못했던 교회 식구들과도 사진을 남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셨더라도 가정에서 가족사진 한 장 찍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요, 한 가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풍을 통해서 한 가족으로 넓혀가면 좋겠습니다. 복음성가의 노래 한 곡조가 생각납니다.

“우린 주 안에 한가족 주 우릴 하나 되게 했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의나라 이뤄지리.”

한주간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 창세기 22장 2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유다서 1장 1~16절
제목 :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인도 : 권재만 목사
찬송 : 438 430 309 357 135

관찰]

- 1~2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인사
- 3~16 거짓 교사(은혜로 방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하지 못한 자) 심판
- 2-1. 5~7 음란함에 빠져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
- 2-2. 8~13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업신여기다 짙은 어둠에서 멸망함
- 2-3. 14~1 불평하며 욕심대로 살고 허풍에 아첨하는 자들은 들추어져 드러날 것

해석]

1. 우리의 정체성은 “종”이다.
2.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 불평불만과 진실하지 못한 말들
3. 은혜를 잘못 사용하는 것 - 욕심대로 살고 육체를 더럽히는 것

적용]

1. 종의 정체성을 기억하자.
2. 내 능력과 지식보다 예수를 생각하자
3. 내 본성을 이해하고 예수로 옷입자

성서일기

멋쟁이학교 홈커밍데이

어제 멋쟁이학교에서 홈커밍데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참석할지 안 할지 고민했거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수어이고 홈커밍데이는 한국어로, 음성언어로 이루어지는 행사라서요. 하지만 제가 멋쟁이학교에 다닐 때를 생각해보면 한국어로 소통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지만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배웠던 기억이 굉장히 컸고, 그런 공동체의 분위기를 다시 느끼고 싶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멋쟁이학교를 졸업한 지 6년이나 되어서 재학생들의 얼굴을 잘 몰라서 약간 서먹한 마음으로 참석하니 안면이 있는 재학생들이 먼저 저에게 와서 반갑게 인사하고, 심지어 수어로 인사를 건네주는 후배가 있어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행사하는 중에 멋쟁이의 과거 그리고 미래가 담겨진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과거 영상을 보자마자 옛 추억이 떠오르면서 소름이 끼치고, 그런 영상을 보는 멋쟁이 후배들을 보니까 괜히 기분이 이상하고, 이렇게 세월이 흘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그리고 손바닥을 찰흙 위에 꺾꺾 눌러 핸드프린팅을 제작하여 멋쟁이 졸업생으로서 흔적을 남긴 게 개인적으로도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사랑방 학교에서 수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저를 받아주신 덕분에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고, 수어를 사용하는 또래들보다 더 다양한(여행, 다양한 운동, 어학연수 등) 경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매번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만큼 많은 배움을 얻었다는 것에 감사드리며 다양한 경험을 한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멋쟁이 선생님들, 함께 지냈던 멋쟁이 친구들, 선후배들, 사랑방 식구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저를 더 멋쟁이로 키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늘푸른사랑방 한규빈 청년

지체들의 삶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권재만 목사
설교자 : 정태일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 편 127 : 1-2
1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요한복음 3 : 16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478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창세기 22 : 1-19
304

설교자
공동체

“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 정태일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559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516(1)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신수호 김혜연 / 봉헌위원 : 이어람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예 배

공동기도문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가정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 교회의 삶으로 충만하도록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말씀하셨습니다.<2>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 사흘 만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제단 장작 위에 묶여있는 이삭을 칼로 찌르려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만류하였고 이삭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정적인 차원에서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가정에 주인이시라는 배경에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신 것을 증언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것을,<창2:>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가정도 회복하시는 구주이신 것을<요2:> 에베소서에는 가정을 교회에 비유하여 그리스도께서 가정의 머리되시는 것을<엡5:-6:>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에는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 사람들이 주인으로 행세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지 않으시고 돌보지 않으신다면 사람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될 것입니다.<시127:> 가족의 복음화와 자녀의 신앙생활에 소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정승희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일상 속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며 지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꾸러기들은 시간이 되면 자연을 보기 위해 톱툰이 산책을 나갑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차를 장미숙권사님 댁에 놓고 산을 넘어서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저번에 갔을 때는 수확이 끝나고 뻐뻐 마른 논을 밟았는데 어느 덧 논에는 모심기가 끝나고 물이 차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초록빛깔 논이 앞으로 짝 펼쳐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중간 중간에 물을 마시면서 쉬는데 이젠 나뭇잎이 우거져서 햇볕을 가려주며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과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산책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현재 꾸러기들은 수가 줄어 모두 4명입니다. 수가 줄어서 좋은 점들이 있는데 이번 주는 아주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미숙권사님이 금요일에 맛있는 피자를 만들어주신다며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졸업생들이 있었지만 수가 많아서 하지 못했던 꾸러기 초대를 이번에 처음으로 해주셨습니다. 꾸러기들이 와서 반갑게 맞아주시며 즉석으로 피자를 만들어주셨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아이들이 배가 터지도록 먹었습니다. 권사님은 계속 더 먹으라고 권해주셨는데 배는 불러도 끝까지 더 달라는 친구가 있어서 오히려 그만 먹게 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권사님께 초대 받아서 기분 좋은 우리 꾸러기들은 조개껍질로 꾸민 멋진 작품을 선물하며 씩씩하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일주일이 왜이리 빨리 지나갈까요?

오월을 벗을 때가 되어 가니 큰 어드벤처 없이 지나는 주간도 있구나 싶지만 지루하거나, 그저 그런날이라는 느낌은 들새도 없이 하루하루가 갑니다.

월요일은 첫 시간이 어린이 전체 예배입니다. 장영미전도사님이 오셔서 **배움과 가르침**

어린이들과 소통하며 설교를 해주셨고, 오후엔 1,2학년이 외부로 수영수업을 받으러 나갑니다. 점심식사 후에 바로 출발을 하는데 멀~리 놀러간 친구들을 찾느라 애를 태울때가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이것도 귀엽습니다. 때를 모르고 들로 산으로 놀러다니던 그때처럼, 뒷일 보다 지금의 놀이에 빠져 있을 때니까요.

화요일은 미술수업날입니다. 강사선생님들께서 여러 분야의 미술세계를 맛보게 해주십니다. 수요일은 악기수업을 합니다. 선택한 악기로 1년간 수업을 진행하고 연말엔 발표도 하지요.

목요일은 3,4학년 연극시간이 있는데 강사선생님을 tv에서 보게 될 때는 이상하게 자랑스럽습니다. 아, 이번주 목요일은 오전에 치과검진을 다녀왔군요!

금요일은 오전수업을 하고 점심식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야호! 집에 갑니다.

이렇게 일주일이 갑니다. 어린이학교는 재미있습니다.^^

다음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기대기대합니다.

< 교사 : 하경임 >

멋쟁이학교

좋은 날씨와 아름다운 하늘 속에서 이번 한주 동안 멋쟁이들은 토요일에 있었던 홈커밍데이를 열심히 준비하며 보냈습니다. 이번 홈커밍데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부진했던 재학생, 동문, 선생님과 소통의 장을 회복하고 창립 20주년과 스승의 날을 함께 축하하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행사 준비로 고생한 멋쟁이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폭 쉬고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 :)

다음주 수요일에는 멋쟁이들이 '2022 애프터눈 레이스 마라톤대회'에 참여합니다. 아무도 다치는 사람 없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

< 교사 : 박예나 >

행복한 시간

저희 집 아이들은 자기 전에 누워서 책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둘이서 책을 골라서 가져오면 제가 아이들에게 읽어주는데 예전에는 책이 얇아서 여러 권을 읽었지만 요즘은 책이 두꺼워져서 한권으로 며칠을 읽곤 합니다. 진용이가 어릴 때 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던 것이 이어져 진용이가 10살이니까 거의 7-8년을 읽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용이가 태어나서 진용이가 3살일 무렵에는 하룻밤에 10권 넘게 골라오기도 해서 그걸 다 읽으면 입이 아플 정도였고, 자주 읽은 책은 거의 외우다시피 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책을 다 듣지 못하고 잠들던 민용이가 이제는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읽어달라고 가져옵니다.

요즘엔 또 한 가지 좋아하는 것이 생겼는데, 책 다 읽고 불도 끄고 누워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궁금한게 왜이리도 생각이 나는지 '엄마 궁금해서 그러는데...' '엄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며칠 전에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에 나오는 삼천궁녀 의자왕을 궁금하다고 해서 '의자왕은 백제라는 나라의 마지막 왕이야'를 시작으로 설명을 해줬고, 또 엇그제는 지난 주에 있었던 캠프 여행에서 속상해서 울었던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으면서...

제가 상상하는 잠자리의 모습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잘자하고 인사하면 스르르 눈을 감고 잠이 드는 것이지만 제 생각과 달리 아이들이 잠들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빨리 재워야 된다는 생각만 없애면 그 시간은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아이들이 다 편안하게 내 옆에 누워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마감한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아이들은 낮에는 안하던 속상했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학교 안에서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하는 비밀이야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적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야기를 해줄 때도 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방해되는 것 없이 서로 목소리만 들으며 집중하는 시간이라 그런지 서로 끈끈해지는 시간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가끔 다른 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빠를 불러올 때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 잘 자 좋은 꿈꾸세요.' '진용이 민용이도 사랑해, 잘자고 좋은 꿈꿔.' 서로 인사를 나누고 행복한 마음을 가득 안고 잠이 들면 밤사이 몸도 마음도 쉼 자랄 것 같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노미현 사모

멋쟁이학교 홈커밍데이

어제 멋쟁이학교에서 홈커밍데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참석할지 안 할지 고민했거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수어이고 홈커밍데이는 한국어로, 음성언어로 이루어지는 행사라서요. 하지만 제가 멋쟁이학교에 다닐 때를 생각해보면 한국어로 소통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지만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배웠던 기억이 굉장히 컸고, 그런 공동체의 분위기를 다시 느끼고 싶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멋쟁이학교를 졸업한 지 6년이나 되어서 재학생들의 얼굴을 잘 몰라서 약간 서먹한 마음으로 참석하니 안면이 있는 재학생들이 먼저 저에게 와서 반갑게 인사하고, 심지어 수어로 인사를 건네주는 후배가 있어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행사하는 중에 멋쟁이의 과거 그리고 미래가 담겨진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과거 영상을 보자마자 옛 추억이 떠오르면서 소름이 끼치고, 그런 영상을 보는 멋쟁이 후배들을 보니까 괜히 기분이 이상하고, 이렇게 세월이 흘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그리고 손바닥을 찰흙 위에 꺾꺾 눌러 핸드프린팅을 제작하여 멋쟁이 졸업생으로서 흔적을 남긴 게 개인적으로도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사랑방 학교에서 수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저를 받아주신 덕분에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고, 수어를 사용하는 또래들보다 더 다양한(여행, 다양한 운동, 어학연수 등) 경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매번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만큼 많은 배움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다양한 경험을 한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멋쟁이 선생님들, 함께 지냈던 멋쟁이 친구들, 선후배들, 사랑방 식구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저를 더 멋쟁이로 키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늘푸른사랑방 한규빈 청년